

효성중공업, 유럽 초고압 전력기기 2300억 수주 ‘질주’

영국·스웨덴·스페인서 대형 계약
영국 시장 점유율 1위로 입지 강화
북유럽·남유럽 잇는 공급망 구축
기술력 앞세워 하이엔드 시장 안착

효성중공업이 이달 영국·스웨덴·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에서 약 2300억원 규모의 초고압 전력기기를 잇따라 수주하며 유럽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최근 영국 스코틀랜드 전력망 운영사인 SPEN(Scottish Power Energy Networks)과 약 1200억원 규모의 초고압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영국은 유럽 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연계 전력기기 수요가 특히 높은 지역으로, 이번에 공급되는 초고압변압기는 영국의 탄소중립 정책인 ‘넷 제로(Net Zero) 플랜’ 이행을 위한 핵심 품력발전 프로젝트에 투입될



효성중공업이 2025년 영국 스코틀랜드에 설치한 초고압변압기.

/효성중공업

예정이다.

효성중공업은 2010년 영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15년간 제품 공급은 물론 고객 맞춤형 설계와 유지보수까지 아우르는 토탈 솔루션 공급업체로 입지를 다져

왔다. 특히 2022년 이후에는 영국 초고압변압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유지하며 경쟁사들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다.

북유럽과 남유럽으로도 수주 성과는 이어지고 있다. 이달 스웨덴의 주요 배

전사업자로부터 약 500억원 규모의 초고압변압기 수주에 성공했다. 해당 사업자와는 지난해부터 파트너십을 지속해 오고 있다.

앞서 노르웨이에서도 초고압변압기 공급 계약을 따내는 등 북유럽 전반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쌓고 있다. 또 스페인의 주요 전력회사 및 에너지 기업과 약 600억원 규모의 변압기·리액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남유럽 시장에서도 첫 성과를 올렸다. 이를 계기로 효성중공업은 유럽 전역을 아우르는 수주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됐다.

유럽 전력기기 시장은 글로벌 선진 기업들이 선점한 대표적인 하이엔드 시장으로, 독보적인 기술력 없이는 신규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효성중공업은 올해 프랑스 송전망 운영사(RTE)의 초고압변압기 단락시험에 성공하며 기술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

시켰다. 단락시험은 극한의 전기적 부하가 가해지는 상황에서도 변압기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지를 검증하는 고난도 시험이다.

업계에서는 조현준 회장이 강조해 온 기술 중심 경영이 보수적인 유럽 고객들의 신뢰를 얻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회장은 평소 “기술이 뒤쳐진 제품이나 불량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며 “전력기기는 수명이 긴 만큼 고객에게 변치 않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초격차 기술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한편 유럽 전력 시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맞물리며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시장 규모는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5% 이상 성장해 약 60~7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한성숙 “청년 로컬창업가 1만명 키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5차 소상공인 릴레이 간담회
로컬창업가 1만명 발굴 의지 밝혀
전문가 제언, 청년창업 사례 공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내년부터 청년이 이끄는 ‘로컬창업가 1만명 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이 지역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제5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에서 “많은 청년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지방에서 창업에 도전하며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다”며 아낌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로컬창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공유하기 위해 청년 로컬창업가 8명을 비롯해 김시열 전주대 교수를 포함한 학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함께했다.

김 교수는 ‘로컬창업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중요성’이란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청년 로컬창업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대학이 청년 로컬창업가를 키우는 핵심 플랫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제5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사례 발표에선 강원도 원주, 충북 청주 등의 청년 로컬창업가들이 지역 자원과 자신만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온 경험을 공유했다.

강원도 들깨 로스터리를 운영하고 있는 ‘깨 로스터리 옥희방앗간’의 문지연 대표, 서울 포방터 시장의 쭈꾸미볶음 식당에서 만능장 제조기업으로 성장한 ‘포방터 쭈꾸미’의 조윤식 대표, 청주 육거리 전통시장에서 만든 비건·저당만두를 미국과 호주 등으로 수출하는 ‘육거리 소

문난만두’ 이지는 대표 등이 온라인 유통, 해외시장 진출, 지역 앵커스토어 등으로 사업을 확장한 과정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로컬 창업 시 위기 극복 경험을 공유하고 로컬 브랜딩, 제품 혁신 등 다양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내년도 업무 보고를 중심으로 로컬 창업가 연 1만명 발굴과 로컬 기업이 연 1000개사 육성에 힘쓸 예정이다.

한편 이날 중기부에 따르면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총 4조4313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융자 4조643억원, 민간 금융기관 대출금 이차보전 3670억원이 포함돼 있다.

지원대상은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구분한다. 중기부는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대상 혁신 창업사업화자금으로 1조6000억원을, 성장기 기업을 위한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및 신성장기반자금으로 1조7000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2500억원은 경영애로 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배정했다.

특히 정책자금은 비수도권과 혁신성장 분야, K-뷰티 기업 등에 집중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bada@

귀뚜라미, 고효율 앞세워 난방비 낮춘다

콘덴싱 교체 시 효율 12% 향상
난방비 연 최대 44만원 절감
카본매트로 부분 난방 효과

귀뚜라미가 겨울철에 더욱 늘어나는 에너지 비용 걱정을 줄여주기 위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와 3세대 카본매트로 시장을 더욱 공략하고 있다.

22일 귀뚜라미에 따르면 난방비 절감의 첫 단계는 보일러 교체다. 환경부 조사(2023년 기준) 결과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바꿀 경우 에너지 효율이 약 12% 향상되며, 연간 최대 44만원의 가스요금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약 100만 원에 이르는 설치 비용은 교체를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귀뚜라미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대렌탈케어와 함께 ‘따숨케어’ 보일러 렌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초기 비용 없이 보일러 설치가 가능하며 최대 8년간 무상 A/S와 연 1회 정기점검, 24시간 내 고장 대응 등 사후 관리까지 포함된다. 특히 ‘거꾸로 ECO 콘덴싱 L 20’ 모델은 제휴카드 사용 시 월 4900원 대로 이용할 수 있어 합리적인 난방 준비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내 전체 난방과 함께 부분 난방을 병행하는 것도 난방비 관리에 효과적이



귀뚜라미 모델 지진희 배우가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3세대 카본매트와 포스를 취하고 있다.

/귀뚜라미

다. 보일러 가동을 줄이고 난방매트를 활용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난방매트는 1세대 전기매트와 2세대 온수매트를 거쳐 최근에는 편의성과 안전성을 강화한 3세대 카본매트로 진화했다.

귀뚜라미 3세대 카본매트는 온수매트 대비 약 절반 수준인 160W 저전력 설계를 적용했다. 한국산업기술원 시험 결과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한 달 사용해도 전기요금은 7000원대에 그치며 에코모드를 사용하면 최대 20%의 추가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제품의 안전성과 내구성도 강화했다. 방탄복 소재로 활용하는 아라미드 섬유를 적용한 ‘아라미드 카본열선’을 사용하고 2중 피복 구조로 열선 손상 가능성을 낮췄다.

/김승호 기자

SK인텔릭스, 산학 협력으로 AI 웰니스 강화

MIT·KAIST·연세대와 기술공동 연구

SK인텔릭스가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산하 융합기술 연구소 MIT 미디어랩(MIT Media Lab), 카이스트(KAIST), 연세대 연구팀과의 산학 협력을 통해 차세대 웰니스 기술 연구에 나선다.

SK인텔릭스는 지난해 MIT 미디어랩에 가입하며 다양한 공동연구 기회를 확보하고 사용자 중심 혁신적인 웰니스 솔루션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AI, 건강, 웰빙의 교차점에 있는 유망 분야를 미디어랩과 함께 발굴하고 조기 감지 및 맞춤형 모니터링 기술 등 미래 웰니스 혁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탐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카이스트 박인규 교수 연구팀과 추진한 ‘딥러닝 기반 실내 유해가스 5종 판별 기술 개발’이 최근 성과를 냈다. 포름알데히드, 황화수소, 암모니아,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등 실내 유해가스 5종을 정밀하게 감지·구분하는 데 성공했으며, 방향제 등 비유해성 가

스에 대해서도 높은 정확도로 판별해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의 정밀도를 한층 끌어올린 결과를 확보했다.

연세대 김태연 교수팀과의 공동 연구도 마무리 단계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도출했다. 자율주행 기반 이동형 에어솔루션과 고정형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 제거 성능 및 청정 시간 등을 비교·분석한 이번 연구를 통해 실제 환경에서의 정량적 성능 지표를 확보하며, 이동형 에어솔루션의 효율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했다. SK인텔릭스는 해당 분석 결과를 향후 제품 설계와 공기청정 기술 고도화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벤처기업 경기, 내년 BSI 100 상회 전망

벤처協 발표 4분기 BSI 지수 95.3
내수판매·자금사정 좋아질 것 기대

벤처기업 경기가 내년 1분기에는 기준점인 100을 상향 돌파하는 등 업계 전반에 훈풍이 불 조짐이다.

올해 1분기부터 꾸준히 상승하며 4분기 현재 100에 바짝 다가섰다.

벤처기업협회가 22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벤처기업 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4분기 실적 BSI는 3분기의 89.9

보다 5.4p 상승한 95.3을 기록했다. 이는 조사를 시작한 202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91.2)과 서비스업(100.1)이 모두 전 분기 대비 개선됐다. 특히 전망 BSI는 올해 4분기 100에서 내년 1분기에는 100.8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에 ‘개선’을 전망한 기업들은 주요 요인으로 내수판매 호전(81.7%), 자금사정 원활(35.5%), 수출호전(22.9%) 등을 꼽았다.

/김승호 기자